

우리는 디지털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6. 7. 23(목) 온라인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시	담당팀	AI법제도센터
2026. 7. 23.(목) 15:00	담 당 자	김형준 센터장(053-230-1251) 구효정 선임(053-230-125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간중심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역할 및 법제도 과제」 공개 세미나 개최

- AI와 우리의 일상-삶 · 권리 · 기회의 변화와 법제도 과제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7월 23일(목),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AI기본사회, 의료·교육·노동 분야 법제도 대응 과제 논의’를 위한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NIA가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운영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행정아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며, 포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AI기본사회에서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과 권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분야별로 살펴본다.
- 개회사에서 김형철 NIA 원장은 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에 닿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NIA는 기술과 정책, 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인간 중심의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와 공론의 장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환영사를 맡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

보호법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축사를 맡은 황정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AI기본사회와 국민주권 강화 방향 관련 제언’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활용·확산 속에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법제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서 의료·교육·노동 분야별 전문가 발제와 대담이 진행된다.
 - (의료)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 AI 혁신과 환자 권리 보호 및 관련 주체 간 책임 분배 방안’을 발표하고,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손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백경희 교수가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 AI활용과 법제 정비 방향을 논의한다.
 - (교육)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민석 교수가 AI 확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세대의 역량, 학교·교사 역할을 발표하고, 인하대학교 철학과 고인석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과장, 서울 상지초등학교 최종영 교사와 발제자인 이민석 교수가 교육 AI의 공공성 확보와 학습권 보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한다.
 - (노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성 교수가 AI 전환에 따른 고용구조·노동환경 변화와 노동법상 쟁점을 발표하고,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동욱 고려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 권오성 교수가 노동 시장 격차 대응과 노동자 권리·사회 안전망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 NIA AI법제도센터는 2019년부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적 쟁점을 발굴·연구하고 있다.

○ 앞으로도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포럼과 공개세미나를 통해 주요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등 새로운 사회의 법제도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끝>

붙임. 사진설명

<개회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형철 원장이 「AI와 우리의 일상-삶·권리·기회의 변화와 법제도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단체사진>



「AI와 우리의 일상-삶·권리·기회의 변화와 법제도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재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손미정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고인석 교수(인하대 철학과), 최경진 교수(한구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김종철 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황정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형철 원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민호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석 교수(국민대 SW융합대학),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백경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준범 교수(서울아산병원), 이용진 실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